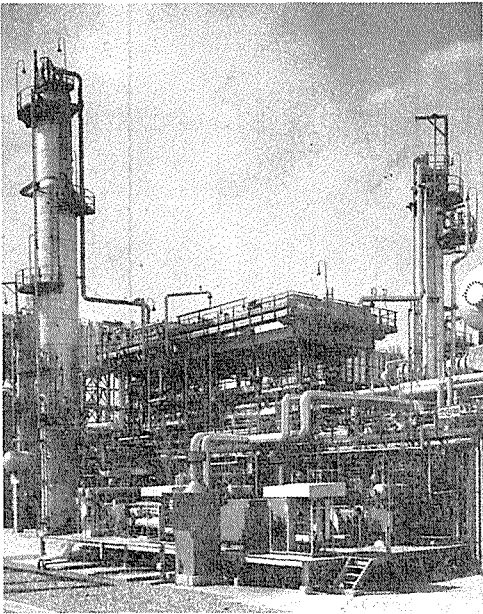


# 油價調整의 背景과 內容



## 1. 油價調整內容

정부는 지난 2월 6일 零時를 期하여 国内石油 類製品價格을 工場渡價格 基準으로 平均 1.68%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昨年末 特別消費稅法이 改正됨에 따라 揮發油는 特消稅率이 130%에서 100%로, 輕油는 7%에서 9%로 조정되었고, LPG는 새로이 10%의 特消稅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바, 이와같은 稅法 改正內容을 반영하여 消費者價格基準으로 普通 揮發油價格은 尙當 740원에서 660원으로 80원이 인하되었고, 高級揮發油는 1,060원에서 890원으로 170원이 인하되었으며, LPG는 10%의 特消稅가 부과됨에도 稅前工場渡價格을 20% 인하하여 家庭用 프로판가스는 尙當 818원에서 740원으로 78원이 인하되었고, 運輸用 부탄가스는 720.03원에서 640원으로 80.03원이 인하되었다.

반면 輕油價格은 特別消費稅率이 7%에서 9%로 上昇된 分만을 반영하여 尙當 278원에서 283원으로 5원이 引上되었으며, 燈油價格은 輕油價格水準을 유지하기 위하여 292원에서 297원으로 5원이 인상되었다.

또한 産業의 國際競爭力을 다소라도 提高하기 위하여 發電 및 産業用 에너지의 主宗을 차지하는 B-C油는 尙當 207.27원에서 204.10원으로 3.17원을 인하하였으며 아파트暖房用 등으로 사용되는 低硫黃 B-C油는 225.56원에서 221.62원으로 3.94원이 인하되었다.

또한 정부는 今番 油價調整時点부터 제트油와 溶劑를 告示 對象에서 제외했다.

이는 民間主導의 經濟運用과 開放經濟體制의 확대 등 經濟·社會 環境變化에 적응할 수 있도록 油價決定方式을 政府의 直接規制에서 間接規制方式으로 전환하기 위한 一段階措置로 풀이 된다.

## 2. 油價引下の背景

정부는 國內油價의 主要決定要因인 國際原油價, 國際金利 및 換率 등 세가지 요인에 대한 전망이 不透明하고, 昨年度 換率上昇으로 인한 油價引上要因이 다소 남아 있음에도 不拘하고 今番 油價引下措置를 한 배경으로서,

國內油價의 전반적인 調整은 國際石油市場 동향과 國際金利 및 換率 등의 變化趨勢가 보다 뚜렷해지는 時點에서 再檢討토록 하고,

우선 현재의 與件下에서 活用 가능한 油價引下要因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조속히 價格에 반영하여 消費者負擔을 줄이고 稅率變更에 따른 調整要因은 가급적 無理없이 價格에 반영하며 歪曲된 油種間價格構造와 일부 油種에 偏重된 마진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需給蹉跌 및 流通上의 혼란을 방지하고,

한편 産業用燃料인 B-C油를 다소라도 인하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當面課題인 物價安定과 産業의 國際競爭力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即 나프타, 燈油, 輕油 등 일부 油種의 低價로 인하여 高價로 책정된 LPG 相當량이 低廉한 價格으로 輸入됨에 따라 LPG販賣競爭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利益이 일부 택시業者 및 中間流通業者에게만 歸屬되고 있는 問題點을 是正하여, 低廉한 LPG가 輸入됨에 따른 利益이 一般國民에게 골고루 分散될 수 있도록,

輸入 LPG에 一定額의 石油事業基金을 징수하고,

이를 財源으로 石油事業基金을 배럴당 2.2달러에서 1.25달러로 引下調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68%의 國內石油製品價格引下要因이 발생, 일부를 LPG價格의 인하에 사용하고 나머지로 産業用燃料인 B-C油價를 인하케 된 것이다.

정부는 今番 油價調整이 油種間價格構造의 正當化에는 아직도 未洽하나, 앞으로 國際原油價

및 國際金利水準이 下向勢를 보이고 換率이 안정화될 경우 發生케 되는 引下要因은 歪曲된 油種間價格構造의 正當化에 重點적으로 반영할 計劃이라고 발표했다.

## 3. 物價背景

今番 油價引下로 都賣物價에는 0.21%의 直接引下效果가 발생하여 物價安定에 다소나마 寄與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 당국자는 내다보고 있다.

## 4. 油價管理制度 改善推進

정부는 앞으로 國內油價管理에 있어서 石油製品價格도 기본적으로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하여 石油政策의 主要課題인 所要石油의 安定確保 및 價格의 安定, 流通構造의 근대화, 公正去來秩序의 확립 등을 阻害하지 않는 方向에서 점진적으로 油價를 自律化할 방침이다.

그 一環으로 今番 調整時에는 國民生活에 직접 영향이 적고 현재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트油·溶劑를 告示對象에서 제외하였으며, B-C油, 아스팔트 등 2段階 自律化 對象豫定 品目은 一定期間의 豫告期間 賦與後 業界의 適應能力具備時 즉시 시행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우리 經濟의 量的, 質的成長에 따른 開放經濟體制의 확대 등으로 經濟·社會 環境이 변화된 점을 勘案하여 石油價格管理方式도 정부의 直接規制에서 間接規制로 전환됨으로써, 石油需給의 圓滑화와 資源의 最適配分을 도모하는 한편, 價格調整時期 遲延으로 인한 物價에의 累積的 衝激을 방지하고 精油産業의 自生的 經營體質培養과 效率性 提高로 長期的인 수급 및 價格安定의 기반을 構築코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